

“농어촌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꾸준히”

농어촌공 전북, 창립 110주년 맞아 기념식 가져 1908년 옥구서부수리조합 설립이 공사의 효시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 대강당)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제110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박종만 농어촌공 전북본부장은 “110년 역사에 대한 자부심은 농어민이 공사의 존재가치를 인정해줄 때 진정한 의미가 있다”며, “농어민이 원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어떤 사업이 필요할지에 대해 항상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농어촌공사는 1908년 전북 옥구서부수리조합을 시작으로 많은 변천을 거치며 성장해 왔다.

또한, 근대적인 수리시설의 조성과 관리를 시작한 공사는 백여 년에 이르는 찬란한 역사를 거쳐 지난 2000

년 농업생산기반 분야의 농지개발조합, 농지개발조합연합회, 농어촌진흥공사의 3개 기관을 통합한 '농업기반공사'를 출범했으며, 통합 이후 기능과 조직혁신을 통해 농어업인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기틀을 다져오며 2005년 12월 29일 '한국농촌공사'로 명칭을 변경, 주요기능을 생산기반 중심에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농촌지역개발, 농지 종합관리 기구로서의 농지은행 업무까지 확장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에, 그동안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관리해온 용수관리를 전국 단위로 일원화하여 농업인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연재해에도 지역간 유기적 협력을 바탕으로 신속히 대처하는 등 대고객 서비스를 획기적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는 5일 본부 대강당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제110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으로 개선하기도 하였다.

2008년 12월 29일 공사법 개정을 통해 공사 이름을 '한국농어촌공사'로 변경, 낙후된 어촌까지 범위 확대, 균형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고 2010년부터는 농지은행사업을 활성화, 고령농업인의 노후 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농지연금사업'을 시작,

농지시장 안정을 위한 '농지매입비촉진사업'을 추진하는 등 농지 관련 종합 기구로서 위상을 굳건히 하고 있다.

특히, 올해 봄부터 지속된 가뭄을 받 빠르게 대처해 농어업의 피해를 줄여 전북본부의 존재가치를 보여주기도 했다. 최근에는 농정방향과 연계하여 4차 산업혁명을 통한 농어업 첨단화를 구축, 기후변화 대응태세 확립과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 청년농업인의 후계인력 양성 등 국가 정책을 뒷받침해 오고 있다.

박종만 농어촌공 전북본부장은 “공사는 한 세기가 넘는 동안 식량자급기반을 확보하고 농어촌의 발전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왔다”며, “기후변화, 시장개방 등 새로운 과제를 안고 있는 농어촌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200주년, 300주년 후에도 꾸준히 농어업인과 함께 역할을 다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농협, 도농협동 어린이 농촌마을 체험 행사 진행

전북농협(본부장 유재도)은 5일 남원 달오름마을(위원장 황태상)과 함께 남원 월락초등학교 어린이 130여명을 대상으로 김장김치 담그기 농촌체험행사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험행사는 전북농협의 지원으로 마을에서 재배한 배추와 양념으로 우리 고유의 김장김치를 직접 담그보는 현장 체험 학습으로써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우리 먹거리가 많은 사람의 땅과 정성이 하나로 이뤄져야 가능하다는 것을 체험으로 느껴보고 우리 농업의 소중함과 도시와 농촌이 함께 공존해야 하는 의미를 느껴보는 시간이었다.

체험학습을 진행한 남원 달오름마을은 농협에서 육성하는 팜스테이 마을로 2004년 농촌진흥청(과목)을 사업 시작으로 웰빙 먹거리 생산, 전통테마체험, 사계절 농촌체험프로그램 운영, 야콘한과 가공체험 등 다양한 체험과 건강한 자연의 기가 숨쉬는 마을로 연중 체험객과 관광객이 끊이지 않는 마을이다.

유재도 전북농협 본부장은 “매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농촌마을 체험행사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업, 농촌의 가치를 알리고 농촌마을의 체험관광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원예농협이 지난 3일 '지도사업 선도농협상'을 수상했다.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한 공로 인정

전주원예농협, 전국 1위 '지도사업 선도농협상' 수상

전주원예농협(조합장 김우철)은 지난 3일 전국 농·축협 중 영농지도 부문에서 농가소득 증대 기여가 전국 농협품목 중 가장 우수한 농협으로 선정되어 '지도사업 선도농협상'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전주원예농협은 지도사업 활성화,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무이자 자금 20여만원을 지원 받게 되었다.

농협중앙회는 지역별 농협의 우수사례 공표로 지도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성공 모델 확산을 위해 2015년부터 전국의 농·축협을 대상, 선도농협을 선정하고 있다.

특히, 전주원예농협은 농촌 인력수급, 인건비 절감을 위한 농촌인력중계센터를 운영해 연간 8,000여명의 인력을 조합원들에게 중계하고 있으며, 조합원 생산 농산물에 대해 시의적절한

영농교육을 매일 지속적으로 실시했다. 또한, 농약, 비료 등 30여개 품목의 할인을 통해 1억6,000여만원, 과일 포장봉지에 대한 보조금 3,500여만원을 지원하는 등 조합원들의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각종 보조금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농가소득 간접지원을 위한 조합원 자녀 장학금 지원 및 영농자재지원, 환원사업을 통해 매년 농가소득 향상 효과에 다방면으로 기여하고 있다.

김우철 전주원예농협조합장은 “항상 조합원들의 입장에 서서 사업을 수행하다보니 이번 '지도사업 선도농협상'을 수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조합원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여 조합원들에게 항상 도움이 되는 전주원예농협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수상소감을 밝혔다.

/김영태 기자

상생·협력의 동반자적 관계 구축

전북은행-군산의료원 금고업무 협약식 가져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지난 3일 전북 군산의료원에서 군산의료원 금고업무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두형진 전북은행 부행장, 김영진 군산의료원장, 전북은행 군산지역 지점장, 군산의료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북은행과 군산의료원은 상생·협력의 동반자적 관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공익을 위한 활동 등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두형진 전북은행부행장은 “전북은행은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서민의 발전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한다”며,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군산의료원의 공공보건 의료사업등의 협력을 통해 전북

은행은 따뜻한 금융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논에 발작물 재배면 온실가스 배출량 줄어

농진청, 토지 이용 변화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산출

논에서 밭 작물을 재배하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농촌진흥청이 5일 발표한 '토지 이용 변화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산출 결과'에 따르면 논에 벼 재배할 때 1ha(헥타르·1ha=1만㎡)당 연간 8.46tCO₂(t)의 온실가스가 배출됐

다. 그러나 논에 밭 작물을 키우면 1ha당 연간 5.31~7.89tCO₂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들었다. 밭 작물별로는 콩 재배시 1ha당 연간 0.57tCO₂의 온실가스가 배출돼 감축량(7.89tCO₂)이 가장 컸다. 함께 재배면 1ha당 연간 0.75tCO₂, 볏

감자 0.99tCO₂, 가을감자 1.29tCO₂, 양파 1.53tCO₂, 마늘 1.61tCO₂, 고구마 2.28tCO₂, 고추 3.15tCO₂의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발간된 '국가온실가스 인벤토리보고서'에 따르면 농업 분야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2060만tCO₂으로 국가 총 배출량의 3.0%를 차지한다. 타 산업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편이나, 토지 이용만 바꿔 온실가스 배출량을 더 줄일 수 있다 얘기다.

/김영태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